



차이나

CHINA Industrial Policy Brief

산업정책 브리프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국무원, <푸젠성 및 타이완 융합발전 추진책> 발표

■ 9월 12일, 국무원은 <푸젠성 및 타이완 융합발전 추진책>(《关于支持福建探索海峡两岸融合发展新路建设两岸融合发展示范区的意见》)을 발표함

- 동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푸젠성 및 타이완의 왕래를 편리하게 하고 협력을 통해 교육·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푸젠성 내 타이완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산업협력을 추진 : 푸젠성 닝더(宁德)시에 설립된 닝더시대(CATL) 신에너지 배터리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향상 △타이완 기업의 중국내 상장을 적극 지원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타이완 중소기업의 푸젠성 진출을 지원 △타이완 중소기업이 푸젠성 전자상거래, 실버산업, 물류, 요식업, 서비스업 등 업종에 투자하도록 적극 지원 △과학기술 협력 추진 : 푸젠성 및 타이완 기업이 과학기술 연구 개발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것 등임
- 한편, 국무원은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제이자 모든 중화권 자녀들의 소원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라고 강조함

자료원 : 신화사

https://www.gov.cn/zhengce/202309/content_6903509.htm

2 中, <포용적 금융 발전 특별 자금 관리법> 발표..10월 1일부터 시행

■ 9월 15일 중국 재정부는 <포용적 금융 발전 특별 자금 관리법>(《普惠金融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을 발표하여 10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임

- * 포용적 금융(普惠金融) : 영세기업, 농민, 도시 저소득 인구,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가리킴

- 동 관리법은 총 7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영세기업 대상 대출 문턱을 완화 △창업자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 개인 창업담보대출 한도는 30만 위안(약 5,500만원), 대출기간은 3년으로 규정 △영세 기업 창업담보대출 상한선을 300만 위안(약 5억 4,500만원)에서 400만 위안(약 7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대출기한을 2년으로 규정 △농촌은행, 농촌 신용사 등 농촌 금융시스템의 지원 범위를 확대 및 개선하는 것 등임

자료원 : 재정부

http://jrs.mof.gov.cn/zhengcefabu/phjr/202309/t20230912_3906595.htm

<https://news.cctv.com/2023/09/12/ARTIHf6E9sxt6jgeTUHKZOg3230912.shtml>

3 中 인민은행, <경제회복을 위한 기준율 0.25%p 인하 조치> 실시

- 9월 14일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금융기구 기준율을 0.25%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함
- 인민은행의 기준율 인하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이번 인하는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기준율은 약 7.4% 수준에 달하며 시중에 중장기 유동성이 5,000억 위안(약 91조1,000억원) 공급될 것으로 전망
- 한편 화창증권연구소(华创证券研究所)의 쟡위(张瑜) 연구소장은 중국인민은행의 기준율 인하는 향후 중국 실물경제, 투자 및 취업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자료원 : 인민은행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068373/index.html>

<https://www.chinanews.com/cj/2023/09-15/10078165.shtml>

4 베이징, <유니콘 기업 육성 강화>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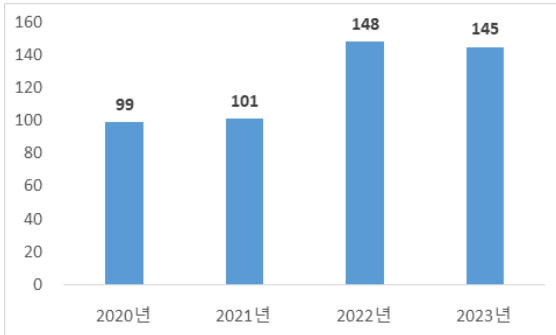
- 9월 8일,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및 베이징시 발개위 등 부처는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조치>(关于进一步培育和服务独角兽企业的若干措施)를 발표함
- 동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유니콘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장려 △유니콘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 기술 난관을 극복한 유니콘 기업 대상 정부에서 1억 위안(약 18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 △유니콘 기업의 베이징시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원 △유니콘 기업 대상 자금조달을 강화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 유니콘 기업 대상 심사 절차 간소화 △유니콘 기업의 인재유입을 지원 : 외국인 채용 시 취업허가증 및 거류허가증 취득 절차 간소화 △중관촌 포럼을 통한 국제 유니콘 기업 교류회 개최 예정 △유니콘 기업의 경영환

경을 최적화하는 것 등임

- 한편, 중국인민대학 중국민영기업연구센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스텔스 유니콘 기업 500강’ 중 베이징시 소재 기업은 145개사를 기록했고 기업 평가가치는 약 5,710억 위안 (약 104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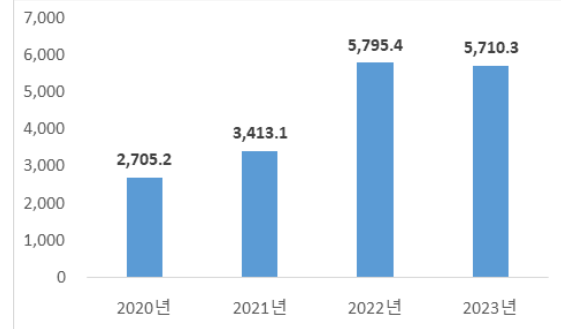
* 스텔스 유니콘 : 기업 가치 10억 달러 미만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가리킴

2020-2023년 베이징 스텔스 유니콘 기업 수 추이
단위 : 개



출처: 중국인민대학 중국민영기업연구센터

2020-2023년 베이징 스텔스 유니콘 기업 평가가치
단위 : 억 위안



출처: 중국인민대학 중국민영기업연구센터

자료원 :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http://kw.beijing.gov.cn/art/2023/9/8/art_2386_28488.html

http://www.zgcsb.com/news/pinDao/2023-06/27/a_453272.html

5 中, <외국인 비자 발급 업무 편리화 조치> 실시

■ 9월 13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10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외국인 비자 발급 관련 업무를 개통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할 계획임

- 동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온라인으로 외국인의 비자 신청, 연장, 재발급 등 업무 접수 및 예약 가능 △온라인으로 비자 처리 진도 조회 가능 △비자 및 영구 거류허가증 정보 온라인 조회 가능 △온라인으로 영구 거류허가증 소유자의 여권 정보 조회 가능
- 한편, 이민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중국의 총 출입국 인원수는 8,241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이 중 외국인 출입국 인원수는 506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국가이민관리국

<https://www.nia.gov.cn/n897453/c1598734/content.html>

<https://www.nia.gov.cn/n741440/n741567/c1596092/content.html>

6 中 인력사회보장부, 〈사회보험 취급조례〉 발표

- 9월 5일 인민망 보도에 따르면, 고용인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사회보험 취급조례〉(《社会保险经办条例》)가 2023년 1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실시
 - 동 법규는 총 7장 6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기본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재보험, 실업 보험 및 출산 보험 등 국가에서 규정한 사회보험은 동 법규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 △고용인 및 개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제시 △정보 공유 강화, 처리 기한 단축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 △사회보험 신용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재정부,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하도록 규정 △사회보험료 남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 등임

자료원 : 인민일보

https://www.gov.cn/zhengce/202309/content_6902035.htm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9/content_6901384.htm

7 EU,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중국 반발

- 9월 14일, 매일경제뉴스에 따르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주EU중국상공회의소는 강력한 반대를 표명
 - * 9월 13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례 정책연설에서 막대한 국가 보조금에 의해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
- 주EU중국상공회의소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망은 유럽 및 글로벌 자동차 산업망과 협력 관계라며 매 한 대의 전기차는 세계 각국 수십 만개의 공급업체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물로 EU는 중국전기차 산업 발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함
-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유럽연구소 둥이판(董一凡)연구원은 13일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중국 전기차의 생산은 대부분 중국 국내 시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유럽으로 수출되는 전기차는 유럽 전체 자동차 소비시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EU가 원가로 경쟁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힘
- 한편, 중국자동차유통협회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對유럽 수출 비중은 49%에 달한 것으로 집계

자료원 : 매일경제뉴스

<https://baijiahao.baidu.com/s?id=1776966097446573741&wfr=spider&for=pc>

<http://www.nbd.com.cn/articles/2023-09-14/3018844.html>